

2025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HAPPY CHUSEOK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시편 106:1 다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 송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통일찬송가 23장) 다 같이

1.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2.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3.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4.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기 도 가족 중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 용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봉독 잠언 3:5-8 (구약 913 페이지) 인도 자

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2.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3.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4.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5-6절)

5절을 보면,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명철, 곧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솔로몬은 6절 상반절에서 범사,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을 바르고 온전케 하시며 그 가는 길에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2.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7절)

7절 상반절을 보면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긴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를지라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한없이 낮추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으며 진리의 빛, 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3.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하고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7-8절)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흠이 없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 사무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만 판명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세상에서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명절에 온 집안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서로 나누며 생각해보는 것도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가족)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옳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찬 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찬송가 456장) **다 같이**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나 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가족소식 **인 도 자**

기 도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폐 회 주기도문 **다 같이**